



코로나 15개월 만에... 전남 초·중·고 학생들 전원 등교 전남지역 초·중·고교 모든 학교가 코로나 19 감염증 발생 이후 15개월만에 전면등교를 시작한 7일 오전 화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4조원 규모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취소

광주시, 아파트 위주 난개발 논란에 종료... 법적 소송 비화될 듯  
낙후지역 개발 사업 취지 공감하지만 지역사회 갈등 양산 아쉬움

광주시가 난개발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4조원 규모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광주일보 2020년 11월 16일자 1면)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종료료를 선언하고,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 전략산업 시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이견이 있고 더 이상 협상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문단 의견 등을 수렴,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측에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이후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또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열악한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3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두 달간 협상한 뒤 30일간 추가로 협상기간을 연장했지만, 컨소시엄 측이 한류콘텐츠 거점 조성 및 관련한 구체적 운영계획 등을 제시하지 못해 협상종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조 부시장은 "90일간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공모 지침에서 밝힌 난개발 방지, 전략산업 시설의 내실있고 안정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시와 컨소시엄 모두 협상에 성실히 임한 만큼 법적 소송 등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위해 수십억원대의 비용을 지출한 컨소시엄 측이 법적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광주

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광주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과 논의해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입찰에선 경찰이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점도 부담이다. 경찰은 광주시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정부 투자 선도시구 공모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응모 용역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이후 해당 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참여한데다, 당시 용역서 반영 전략산업(한류 문화 콘텐츠)이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계획에 그대로 반영된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시정 안팎에선 이번 사업 취소와 관련해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 결정 폐쇄성, 부실한 검증 등 고질적인 아마추어식 행정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성 없는 행정행위 때문에 3개월에 걸쳐 수많은 공직자들이 관

련 업무에 투입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사회에 갈등만 양산했기 때문이다.

실제 4조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초기 시 관련 부서와 업무적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폐쇄적인 행정행위가 반복돼 시청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김대중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낙후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998년 준공업 지역 지정 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된 평동 준공업지역 일대를 미래 전략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콘셉트로 최대 4조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파트(5000여 세대), 주상복합(3000여 세대) 등이 포함되면서 아파트 위주 난개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국내 백신생산 역량 극대화 글로벌 백신기업 유치 집중 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정부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해 백신 생산역량 극대화, 산업 생태계 고도화, 원부자재 국산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글로벌 백신기업 국내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코로나19의 지속한 극복과 글로벌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양국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으며, 정부는 TF를 구성해 국내 이행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TF가 이날 보고한 백신 허브화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적으로 기업 간 상호보완적 컨소시엄 운영을 지원해 국내 백신생산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생산기술에 장점이 있는 A기업과 설비구축이 강점인 B기업의 협력을 지원하거나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C기업과 원액-완제 중전이 가능한 D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발-생산-수출-유통' 등 단계별 대책을 통해 산업생태계 고도화 전략을 추진한다. 또 원부자재 공급 확대를 위해 백신산업 원부자재 수요와 관련된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국산화 대상 항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백신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각종 인센티브 및 패키지형 맞춤 지원으로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남 시장·군수 공약 이행률 분석 ▶6면  
굿모닝 예향 - 이정국 감독, 'SOOF' ▶18·19면



타이거즈 전망대 - 풀찌 추락 위기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웅만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민주당 국회의원·가족 12명 부동산 거래 위법 의혹 연루

권익위 발표... 당, 후속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파악해 7일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출당' 등의 강도 높은 후속 방안을 최고위에서 논의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 조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혹이 확인된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이다.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포함됐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친족 간 특이 거래,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등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해당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은 물론, 장소나 사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를 통해 '출당'을 포함한 징계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지난 2일에도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사·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지도부는 "우선 당원자격정지 이후 협의가 드러나면 출당조치 하지"는 절충안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촉촉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렉스스프레이 및 전국 백화점, 아마존 카운셀링룸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렉스스프레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